

뜨거운 홍콩의 3월, 하버아트조각공원에서 아트바젤홍콩까지

Spring, 2018 | 윤정림 아트컨설턴트/홍콩통신원

홍콩

뜨거운 홍콩의 3월, 하버아트조각공원에서 아트바젤홍콩까지

World Wide

Hongkong

매년 3월은 세계적인 이목이 홍콩을 향한다. 글로벌 아트마켓의 싹을 각축장으로 자리 잡은 아트바젤홍콩을 시작으로 크리스티와 소더비 경매사의 경쟁, 세계적인 탑 갤러리들의 빅 이벤트와 전시까지 볼거리로 넘쳐난다. 특히 올해는 홍콩 진출 10주년을 맞은 서울옥션이 가장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에이치퀸스에 새로운 프라이빗 전시공간인 SA+를 오픈했고, 가장 큰 규모로 열린 하버아트조각공원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에는 우리나라 김홍석 작가도 초대되었다.

글 윤정림

아트컨설턴트
홍콩통신원

홍콩의 다채로운 3월

홍콩의 3월은 아트갤러리에서 가장 바쁜 달이다. 세계적인 아트페어인 아트바젤홍콩(Art Basel Hong Kong)을 선두로 주요미술관, 갤러리, 비영리공간 등에서 크고 작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들이 쏟아진다. 현대미술관인 엠플러스(MPlus)에서는 작년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사운드아티스트 샘슨영(Samson Young)의 'Songs for Disaster Relief World Tour' 전시가 열리고 있고, 아시아소사이어티(Asia Society)에서는 로버트인디애나(Robert Indiana)와 8명의 아시아 작가들이 함께 한 'Love Long: Robert Indiana and Asia'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 하나의 아트랜드마크인 H Queen's가 드디어 오픈하면서 데이비드 즈위너(David Zwirner), 하우스 앤 워스(Hauser & Wirth), 페이스 갤러리(Pace Gallery) 등 세계 정상급 갤러리들이 속속 개관하고 있으며, 서울옥션 홍콩법인의 프라이빗 세일 전시장인 SA+도 같은 건물 11층에 오픈하여 첫 전시 'RED'전으로 이우환과 김환기, 쿠사마 야요이, 제프쿤스 등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다양한 전시의 홍수 속에서도 단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하버아트조각공원(Harbour Arts Sculpture Park)은 홍콩 최초, 최대의 공공아트조각프로젝트로 지난 2월22일 홍콩의 아트먼스(Hong Kong Arts Month)의 첫 포문을 열었다.

하버아트조각공원의 하이라이트

하버아트조각공원(Harbour Arts Sculpture Park, 2018.2.22-4.11)은 홍콩의 상징인 빅토리아 하버를 세계적 명성의 작가들과 로컬작가들의 작품으로 새롭게 변신시켰다. 로얄아카데미오브아츠(Royal Academy of Arts, RA)의 예술감독인 팀 말로(Tim Marlow)와 모리미술관 디렉터 후미오 난조(Fumio Nanjo)가 큐레이팅한 이번전시는 홍콩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세계적 수준의 작품을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했다. 홍콩아트센터가 있는 완차이부터 센트럴 웨스턴 산책로로 이어지는 오픈스페이스(Central and Western District Promenade & Wan Chai)에서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i), 안소니 고펜(Anthony Gormley), 트레이시 에민(Tracey Emin), 마이클 크레이그-마틴(Michael Craig-Martin)등을 비롯한 미술계 슈퍼스타들과 5명의 홍콩작가 등 총 19명의 작가의 21점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한국작가로는 김홍석 작가가 유일하게 참여하였다.

하버아트조각공원의 시작은 홍콩아트센터 앞에 자리 잡은 헝크 윌리스 토마스(Hank Willis Thomas)의 작품들로 채워졌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그의 작품은 문화적 경계를 초월한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The Truth is I love



- ① HANK WILLIS THOMAS (The Truth Is I Love You, 2015)
- ② HANK WILLIS THOMAS (Ernest and Ruth, 2015)
- ③ ZHAN WANG (45 Degrees Artificial Rock, 2014)

Installation view of Harbour Arts Sculpture Park 2018

You)"란 문구가 영어와 중국어로 구성된 <Truth Bubble Sign Tree>와 커다란 말풍선 모양의 구조물인 <Ernest and Ruth>는 서로 병치를 이루며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말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Ernest and Ruth>는 벤치로 활용이 가능한데 작가는 관람자들이 작품에 앉을 때 자신의 말과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사색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트센터에서 에드미럴티 방면으로 걸어가다 보면 45도로 기울어진 거대한 스틸(steel) 구조물을 발견할 수 있다. 타마공원에서 시작되는 전시의 첫 번째 작품인 인기작가 잔왕(Zhan Wang)의 <45 Degrees Artificial Rock>이다. 수석(scholar rocks)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 반짝이는 대형 인공바위는 크롬코팅으로 주변의 환경을 비추며 굴절에 따라 사라지거나 나타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는 존재와 부재의 배회를 나타낸다고 한다. 작품의 형태는 작가의 1995년작 <Bird Trap>에서 온 것으로 제목의 '45도'는 가장 완벽한 빛의 기울기라고 한다. 또한 이 기울기는 작가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움직임의 각도로 언제든지 튀어오르거나 혹은 추락하는 듯한 등적인 느낌을 준다고 한다. 큐레이터의 의도인지 몰라도 이런 작품을 홍콩입법부 건물 앞에 배치한 점이 의미심장하다.

또 다른 인기작품은 공원중간에 자리 잡은 영국작가



④ MARK WALLINGER <White Horse, 2013>
 ⑤ GIMHONGSOK <Bearlike Construction, 2012>

Installation view of Harbour Arts Sculpture Park 2018

마크 월링저(Mark Wallinger)의 <화이트 호스(White Horse)>인데 살아있는 순종 경주마를 디지털 방식으로 스캔하여 정확하게 표현한 실제 크기의 조각이다. 어쩌면 푸른 공원과 어울리는 한필의 말이 '그저 잘 맞아 떨어지는 조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속에서는 역사적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작품이 위치한 하버프론트(harbour front)는 홍콩과 영국 그리고 승마 전통 사이의 복잡한 역사를 연상시킨다. 홍콩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주코스 2곳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1845년 홍콩에 거주하는 영국인에게 경마를 제공하기 위해 지어졌다. 당시 경마클럽의 가입조건은 상류계급으로 한정되었고, 여성과 그 외 평범한 사람들은 배제되었다고 한다. 작가는 홍콩과 영국의 식민지 역사에서 나타난 말의 상징적인 지위를 통해서 영국인의 사회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선입견을 탐구하고 있다

타마파크 끝자락에 위치한 **김홍석**의 <Bearlike Construction>은 검정색 테디베어의 형상으로 자세히 보면 쓰레기봉투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귀여운 형태 때문에 어린이 관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지만, 가치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심오한 작품이다. 사물이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정의는 얼마든지 주관적일 수 있다는 명제 아래에 작가는 비닐봉지, 종이상자, 포장지 등 작품을 포장하는 재료들을 주제로 끌어들이는다.

대략 한 시간 반 정도면 설치된 모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빅토리아 하버, 구룡반도의 전경은 덤으로 즐길 수 있다. 벽이 없는 열린 미술관을 표방하며 시민들에게 전시 외 워크숍과 교육프로그램 또한 진행한 결과, 이번전시를 통해 아시아미술시장의 주요 거점이 된 홍콩이 공공미술의 거점 또한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초대작가는 Rasheed Araeen(U.K.), Michael Craig-Martin(U.K.), Tracey Emin(U.

K.), Ho Kwun Ting(HKSAR), Jenny Holzer(U.S.A.), Gimhongsok(South Korea), Antony Gormley(U.K.), Zheng Guogu(China), Yayoi Kusama(Japan), Tony Oursler(U.S.A.), Conrad Shawcross(U.K.), Bosco Sodi(Mexico), Hank Willis Thomas(U.S.A.), Matthew Tsang(HKSAR), Mark Wallinger(U.K.), Zhan Wang(China), Wong Chi-yung(HKSAR), Kacey Wong(HKSAR) and Morgan Wong(HKSAR) 등이다.

아트먼스의 하이라이트 아트바젤 홍콩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아트바젤 홍콩(Art Basel Hong Kong)이 지난 3월31일 막을 내리며 아트먼스의 대장정을 마무리 지었다. 대형 갤러리에서 울려 퍼지는 작품판매 소식은 승전보처럼 매일 뉴스지면을 장식하지만, 관람객들은 이번 아트바젤 홍콩이 오히려 작년보다 더 비엔날레의 성격에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한다. 아트페어라는 철저히 상업적인 행사에서 느껴지는 감흥으로는 조금 의문스럽지만, 그 이유는 빅네임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갤러리들의 부스에서 찾아볼 수 있을 듯하다. 현지 갤러리스트의 말에 따르면 어차피 세일즈는 대형갤러리에 집중이 되고 컬렉터들도 바젤이나 마이애미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니, 오히려 아트페어를 갤러리와 작가홍보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써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런 이유로 아시아 지역 갤러리들은 상업적인 작품보다는 젊은 작가의 실험적인 작품을 전면에 내세워 홍보하고, 아카데미한 부스를 선보이게 된 것이다. 어쩌면 다양성과 교육적 측면에서는 관람자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갤러리스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양극화된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생존의 문제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런 특징들이 아트바젤 홍콩을 다른 에디션과 차별화하고, 아트페어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이벤트로서 존재하게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7



- ① Edouard Malingue Gallery / Encounters-Chou Yu-Cheng
- ② David Zwirner / 1C20 Jeff Koons

Installation view of Art Basel Hongkong 2018



윤정림 Helena Yun

글쓴이 윤정림은 한국에서 갤러리스트로 6년간 일하며, 다양한 전시와 아트페어를 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쌓았다. 홍콩으로 이주 후 독립 아트컨설턴트로 일하며, 전시 코디네이팅·갤러리 컨설팅·한국미술경영연구소의 국제연구원·기고가 등 미술과 관계된 다방면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